



민요·판소리·한국무용... 다채로운 전통예술로 새해 소망 기원한다

이날 무대는 광주시립창극단 창작 부 남성 단원들의 민요 '방아타령'으로 문을 연다. '방아타령'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가 맹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황성으로 가던 중 동네 여인들과 방아를 찼으며 부르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국가무형유산 승무, 살풀이춤 이수자인 최창덕 명무의 '승무'가 펼쳐진다. 민속무용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는 유려하게 흐르는 조형적 선과 고고하고 단아한 정중동의 춤사위로 인간의 희열과 인육의 세계를 그려낸 춤이다.

세 번째 무대로 적벽가 중 '적벽강 불 지르는 대목'인 국가무형유산 제5호 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인 김립 구 명창과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별 이수자인 이태백 명고의 장단으로 울려 퍼진다. 조조 군의 전선과 장비가 불타고, 이를 모를 군사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서술한 대목으로 조조가 달아나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표현됐다.

●오는 14일 광주시립창극단 기획공연 '송년 국악한마당'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기획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의 '2024 송년 국악한마당'이 오는 14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방아타령·태평무 등 창작·타악·무용부 무대부터 최창덕 명무 '승무' 등 국가무형문화재 공연까지

무용부에서는 '태평무'를 선보인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적 전통춤으로, 절제미가 강조된 궁중무용의 미적 요소와 민속무용의 흥과 신명을 잘 녹여내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특성을 집약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춤이다.

다섯 번째 무대로 창작부 여성 단원의 민요 '동백타령, 신사철가'를 들려준다. '동백타령'은 동백꽃을 소재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골마을의 화목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신사철가'는 계절의 순환 속 변화하는 자연 풍광과 인생의 유한성, 그리고 덧없음을 노래한다.

이어지는 무대인 단막 창극 '광한루'는 춘향전 중 초입부분 대목으로 청춘 남녀의 사랑이 읊트는 장면이다. 이도령과 방자의 주고받는 말맛과 방자의 너근너근한 소리, 흥겹고 발랄한 몸짓

등이 특징이다.

공연의 대미는 타악부의 대북을 위한 신명 판타지 '취(吹)와 타(打)' 무대다. 총 4장(울림, 조화, 신명, 축제)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하늘을 울리는 대고와 땅을 울리는 나발 소리 그리고 모듬북 합주를 통해 멋과 흥의 신명 판타지를 이뤘다.

박승희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갑진년 올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자 마련된 이번 기획공연은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며 "내년에도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정기공연으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립창극단 기획공연 '송년 국악한마당'은 5세 이상 관람가로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나의 문화예술교육을 찾아서...

광주문화재단 워크숍 '다정한 참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서로 배움 '다정한 참견'을 운영한다.

'다정한 참견'은 2022년부터 시작한 광주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또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예술인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광주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서로 배우는 소규모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다정한 참견'은 3-6일 4일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나의 문화예술교육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다.

문화예술교육 주체자로서의 나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는 이번 워크숍은 총 3개 과정(글쓰기 I/II, 문화예술교육 이해, AI실습),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초·심화·통합과정을 통해 개인의 필요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일차에는 글쓰기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개인의 경험과 활동을 성찰하며 출발점을 찾는다. 2일차에는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정책 동향을 탐구한다. 3일차에는 인공지능(AI) 실습을 통해 활동가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 4일차에는 나의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정립해법으로써 글쓰기를 통해



나만의 철학과 가치를 구체화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에는 ▲임아영(지역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컨설턴트) ▲고영직(문학평론가) ▲권수미(한국고원대학교 음악전공 교수) ▲손경년(예술경영 및 예술행정 전문가) ▲조은이(퓨처캐릭터 대표) 씨가 강사로 나선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순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수묵대가 남농 허건 발자취 조명

남농미술문화재단 학술대회, 7일 목포문화도시센터

'남농화의 거목' 남농 허건 선생의 미술사적 업적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린다.

남농미술문화재단은 오는 7일 오후 1시30분 목포문화도시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학술대회 '다시 읽는 한국 근현대 미술, 남농 허건연구'를 개최한다. 1908년 진도에서 태어난 허건은 한국 실경과 향토적 정취를 화폭에 담으며 '남농 산수'라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발전시켰다. 그는 남도의 산수와 인화 등 다양한 화제를 통해 독특한 표현양식을 구현하며 근현대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지훈 기획운영

자(전남대 강사)가 사회를 맡으며 허건 남농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홍선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남농 허건 창작 세계의 재해석'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하며, 배원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의 '한국 근현대 사회전 전개양상 - 남농 허건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민수 홍익대 초빙교수의 '윤림산방 화백과 전통의 변주: 허림, 허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은 이근수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을 좌장으로 최성희 광주교대 교수, 조은정 국립목포대 교수, 주해영 전남대 교수가 질의자로 참여한다. /최명진 기자

'충장프렌즈'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

무등산 아기호랑이 '소덕이' 등 5종 캐릭터 구성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의 '충장프렌즈'가 2024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축제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와 대전관광공사가 주관했다.

축제부분 대상을 수상한 '충장프렌즈'는 무등산에 사는 동물을 모티브로 개발된 충장축제 캐릭터다.

무등산 아기호랑이 '소덕이', 소덕이가 데리고 다니는 애완볼 '부리', 아이들을 꾸꾸는 아기토끼 '쥬', 장난꾸러기 하늘다람쥐 '로라', 예의 바르고 마음 따뜻한 담비 '고고' 총 5종 캐릭터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월4일 탄생 1주년을 맞이한 충장프렌즈는 지난해부터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기간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 굿즈로 제작, 판매됐다.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수상 특전으로 지난달 22-24일 제3회 대전콘텐츠페어에서 캐릭터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지자체와 기업 등 300여곳이 참여하는 이번 페어에서 재단은 충장축제 캐릭터와 광주 동구 충장축제, 버스킹월드컵을 홍보했다.

문장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충장프렌즈를 다양한 방면으로 브랜드화 전격적 인지도를 지닌 캐릭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